

여름철 기상재해

알고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합시다.

최낙거 재해대응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최근 한반도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며 외국에 비해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가 증가하면서 상시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강수량 증가로 호우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월 한파, 2~3월에는 일조부족, 3~4월 저온, 5~6월 우박과 강수량 부족으로 일부지역에서 농작물 가뭄피해가 발생했다.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태풍, 폭염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요령을 알아보자.

7~8월 기상전망

올 여름, 태풍은 9~11개가 발생하여 평년 11.2개와 비슷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1~2개로 평년 2.3개와 비슷하겠으며, 주로 7월과 8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7월 후반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사이에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겠고, 장마전선이 소멸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면 지역에 따라 폭염(일 최고기온 33℃ 이상)과 열대야(밤 최저기온 25℃ 이상)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8월에는 무더운 가운데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강우가 자주 발생하고,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풍수해대비 농작물관리

벼농사는 논 주위에 배수구를 정비하여 물

이 잘 빠지게 하고 침수상습지의 경우 질소질 비료는 20~30% 줄이고, 칼리질 비료는 20~30% 더 주어야 하며, 흰잎마름병, 도열병 및 벼멸구 방제약제를 사전에 확보한다. 피해발생 시 물에 잠긴 논은 서둘러 잎 끝만이라도 물 위에 나올 수 있도록 물 빼기를 실시하고, 물이 빨질 때는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양금과 오물을 제거하며, 물이 빠진 후 새물 걸러대기로 뿌리의 활력을 높인다. 침·관수된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및 벼멸구 등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발작물, 노지채소는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를 예방하고, 참깨는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을 방지한다. 고추는 줄지주, 개별지주를 보강하여 쓰러짐을 방지하며 덮은 비닐이 날리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잦은 강우로 비료 유실시 질소+칼리혼용 살포 및 엽면시비(앞에 비료주기)를

하고, 붉은 고추, 수박 등 수확기가 된 과채류는 비오기 전에 수확한다. 피해발생시 고추, 수박 등은 무름병, 돌림병, 탄저병 등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병에 걸리거나 상처 입은 열매는 빨리 제거하여 다음 열매 자람을 촉진시킨다.

과수는 배수로를 깊게 파서 습해를 방지하고, 초생재배 과수원은 풀베기를 한다. 경사지나 새로 조성한 과수원은 짚 또는 산야초, 비닐 등을 덮어 폭우로 겉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바람에 의하여 찢어질 우려가 있는 가지는 묶어 주고 늘어진 가지는 받침대를 받쳐준다. 밀식재배에서는 철선지주를 점검하여 선의 당김 상태를 점검하고,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한다.

폭염대비 농작물관리

벼는 감수분열기의 경우 38℃, 개화·수정기는 35℃가 생육최고온도로 이상기온이 계속될 경우 생육감소, 불임유발, 벼 알 수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된다. 논물 흘러대기로 온도를 내리고 칼리비료를 증시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고추는 고온지속 시 생육부진, 수정장애로 착과불량 및 낙과발생이 많아지며 뿌리활력이 떨어진다. 관리요령으로는 물을 주어 토양의 습도를 유지시키고, 짚·풀·퇴비 등을 덮어 토양수분증발 및 지온상승을 억제시킨다. 웃거름은 가급적 적게 주고 적기수확으로 후기 생육을 촉진시킨다.

고랭지 무·배추는 고온이 계속되면 양분과 수분 흡수 부족으로 생육부진 및 석회결핍 현상이 나타나며 열매 맺는 시기에 고온이 계속되면 생장이 멈추고 속이 제대로 들지 않을 수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주기가 가능한 포장은 물을 주고, 생육이 부진한 곳은 잎에 물 비료를 준다. 비가림 재배포장에서는 차광망 설치로 고온장해를 예방하고 무사마귀병, 뿌리마름병, 진딧물, 벼룩잎벌레 등 병해충을 방제한다.



▲ 일소피해과

과수는 생육적온 이상고온 시 호흡과다로 과실이 커지지 못하고 햇빛데임 및 잎 가장자리가 타는 피해가 발생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적절히 주며 과수나무의 수분을 뺏을 수 있는 잡초, 목초 등은 베어주고 산야초, 벚짚 등으로 과수원을 덮어 토양수분 증발을 억제한다. 과실이 강한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가지를 배치해 지주에 묶고, 진딧물, 응애류, 흡즙곤충 등 해충의 예찰 및 방제를 철저히 한다. ㉞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2년 7월호)